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 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 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오늘 미사 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 성모성월 야외미사

- 일시: 5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소: Highbanks Park (Northern Shelter)
- 행사 내용
 - *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모든 신자)
 - * 꽃 봉헌 (모든 신자)
 - * 헌시 낭독 (평화의 모후)
 - * 미사

◆ 은총 시장

- 일시: 5월 11일 야외미사 점심 식사 후
-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한 학기 동안 받은 은총표 수에 따라 선물을 받습니다.
-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는 게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지 순례 (꾸리아 주관)

- 일시: 5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 Our Lady of Consolation (Carey, OH)
-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는 최레지나 꾸리아 단장님에게 연락바랍니다. (614)915-8315

◆ 성모회 월례모임

- 일시: 5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미사 중 외부인 침입 등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미사 시작 5분 후 성당 정문을 잠그겠습니다. 혹시 늦게 오시는 분은 정문 오른쪽 문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 주일 학교 자모회

- 오늘 미사 후, 주일학교 교실

◆ 주일 학교 봉사자

- 5월 4일: 류경숙, 백애령

◆ 친교 준비 봉사자

- 5월 4일: 연도흠

◆ 5월 친교 후 봉사: 이호영 구역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병자 봉성체가 있습니다.

◆ 2008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모금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입니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주님 승천 대축일 May 4, 2008



<예수 승천>

김재형(1939-), 유화, 개인소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55.00
교 무 금	\$550.00
감 사 헌 금	\$200.00

- 교 무 금: 이영수 최준기 김승재 이영숙 안유향 인영범
- 감사 헌금: 익명
- BAA (지난 주일): 정동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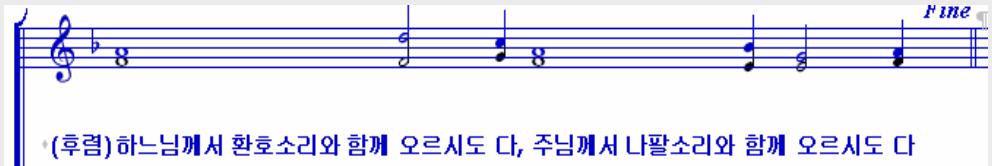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사도행전 1,1-11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화답송



(후렴) 하느님께서 환호소리와 함께 오르시도 다,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르시도 다

제 2 독서 에페소서 1,17-23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8,16-20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445단 12명
이호영	단 명	8,535단 7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120단 1명	6,445단 68명
김효임	15단 1명	10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135단 2명	2/22/04-4/27/08 (218주)

☞ 총누계: 197,385단 12,670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5월 4일	5월 11일
해설자	김오경	신현태
독서/봉헌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141 ♫ 봉헌: 510
♫ 성체: 140 198 ♫ 파견: 137

주님의 승천과 희망의 하늘

변종찬 마태오 신부, 서울대학교

오늘 제 1 독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사도 1,9)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지만, 승천 광경을 목격하는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더 이상 자신들의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사실과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사실을 사도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께서 가신 곳, 즉 하늘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정 그들에게 있어 하늘은 현재의 좌절과 불안의 감정을 선사하는 곳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또한 희망 없는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이를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서서 그가 간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눈 시간과 장소를 떠올리며 행복에 잠기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다는 서러움에 눈물짓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하늘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투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갈릴래야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사도 1,11)라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의 질문은 덧없이 하늘만 바라보던 사도들의 마음을 흔들며 놓습니다. 예수님 승천의 의미와 그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라는 말씀은 하늘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장소로 변화됨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공허함의 장소가 아니라, 역동적 희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눈물로 점철되지 않고 오히려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시간이며, 더욱이 그가 부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열과 성을 다해 그것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해야 하며 우리의 구체적 현장 안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는 하늘,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장소로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지쳐 성경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기도하기조차 싫을 때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은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희망 속에 기뻐하게 해 줄 것입니다(로마 12,12).